

#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에 나타난 공간구성요소의 디자인 특성

##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Spatial Organization Elements Observed in Malaysian Hotel Lobbies

Author 오혜경 Oh, Hye-Kyung / 정희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nents observed in Malaysian hotel lobbie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façades and indoor space components of 15 hotel lobbies in Langkawi and Penang, and drew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designs found in the façades and indoor space components of Malaysian hotel lobbies reflected all of traditional and colonial styles, religious styles including Islamic, and contemporary styles. Second, traditional designs showed rather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s tha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s. Particularly in ceilings, walls and windows/door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modernization was observed frequently. Third, contemporary designs were mostly formative modernization, and materials and colors still adhered to traditions and nature. Fourth, in applied furniture, traditional wood sculptures were mixed or traditional material rattan(stems of climbing palms) was utilized actively. Fourth, a large number of designs symbolized the Malaysian first religion Islam. Summing up these results, the common point of designs observed in the façades and indoor space components of Malaysian hotel lobbies was that they were transformed into Malaysian style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traditional or colonial.

**Keywords** 말레이시아 전통양식, 식민양식, 트로피컬 디자인  
Malaysia Traditional Style, Colonial Style, Tropical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진출을 늘이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해외진출 주택사업은 대부분 개발형 사업에 치중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를 해당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설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기에 앞서 그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형 주택을 그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D토건이 건설한 카자흐스탄의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포함한 주택으로 성황리에 분양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한국식 내부는 그 지역의 생활 습관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과연 우

리의 문화를 그대로 그들에게 이입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과 관습이 있고 주택은 이들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은 그들의 문화와 주거 및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중 대륙부와 도서부의 중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파사드와 내부공간에 나타난 공간구성요소의 디자인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공간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공간 계획 시 그리고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조사로 조사대상 공간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지역은 말레이시아 공간디자인의 특성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 랑카위와 페낭을 선정하였다. 랑카위는 가장 큰 섬으로 다양한 휴양

1) 조성훈,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7, pp.23~29

시설이 발달하였고, 체낭(Pantai Cenang)과 탄정(Pantai Tanjung)을 중심으로 전통양식의 고급 리조트호텔이 분포한다. 페낭은 오랜 기간 유럽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조지타운(George Town), 바투핑기해변(Batu Ferringhi beach)에 식민양식 건물이 남아있다. 둘째, 호텔 선정은 호텔평가기준에서 4성급 이상 호텔<sup>2)</sup>의 리스트를 모두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검색하여 각각의 정보 및 사진을 수집한 후 PPT로 정리하였으며 작성한 PPT를 검토해 말레이시아 고유의 양식<sup>3)</sup>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호텔을 선정하였다. 셋째, 작성한 리스트를 가지고 현지에서 예비조사 한 결과 연구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진촬영이 허락되지 않는 호텔을 제외하였고 따라서 랑카위 소재 호텔 10사례, 페낭 소재 호텔 5사례 등 총 15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의 선정(총 15사례)

지역	호텔명	등급
Langkawi	1 The Datal	★★★★★
	2 Four Season	★★★★★
	3 The Andaman	★★★★★
	4 Tanjung Rhu	★★★★★
	5 Bonton	★★★★
	6 Westin	★★★★★
	7 Meritus Pelangi Resort	★★★★★
	8 Berjaya Resort	★★★★
	9 Frangipani Resort	★★★★
	10 Casa Del Mar	★★★★
Penang	1 Golden Sands Resort	★★★★
	2 Rosa Sayang Resort	★★★★★
	3 Grand Plaza Parkroyal	★★★★
	4 Holiday Inn Resort	★★★★
	5 Eastern & Oriental	★★★★★

조사는 2009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호텔을 방문하여 먼저 파사드를 살펴보고 지붕부, 전면벽, 창/문의 디테일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음, 내부로 진입하면서 공간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 창, 문 그리고 가구, 소품의 디테일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2011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랑카위지역을 재방문하여 보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각 요소별로 모아 표로 종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어느 유형(트래디셔널(T)유형, 콜로니얼(C)유형, 모던(M)유형과 이들이 혼합된 T+C유형, T+M유형, C+M유형<sup>4)</sup>에 속하

- 한 나라의 공간디자인 특성을 추출하려면 그 나라의 고유한 디자인이 나타난 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호텔의 로비에서 고유의 디자인을 찾을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공간계획 시 참고자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디자인이 유용할 것이므로 4성급 이상을 선정하였다.
- 말레이시아 고유의 양식이란 전통양식과 식민시대의 양식을 말하며 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객실이 대부분이고 로비는 제한적이었다.
- 이상과 같은 분류는 동남아시아의 공간디자인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따라 유형이 바뀌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데에서 기인하며 그 유형은 식민시기 전의 전통적 유형인 트로피컬 트래디셔널(Tropical Traditional), 식민시기에서 독립 전까지 유형인 트로피컬 콜로니얼(Tropical Colonial), 독립 이후의 유형인 트로피컬 모던

는지를 판단하였다. 다음, 각 요소별로 같은 유형을 묶어 조사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조정하였으며 각 요소별 표 및 조사내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방법

항목	평가 항목	분석 방법
파사드 구성요소	지붕부, 창/문, 전면벽(창/문 제외)	각 요소의 구조, 형태, 재료, 패턴, 색채 분석 → 각 요소의 보수적 표현과 진보적 표현 분석 <sup>5)</sup> 및 T, C, M, T+C, T+M, C+M 유형 분류 →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내부공간 구성요소	*구조요소: 천장, 벽, 기둥, 바닥, 창/문 *장식요소: 가구, 장식품	

## 2. 말레이시아의 공간특성

말레이시아는 2~3세기에 처음 중앙집권화 된 왕국이 출현하였고 7~14세기에는 인도에서 온 스리위자야 왕국이 집권하여 인도문화가 전파되었다. 14세기 말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말라카왕국이 건국되어 이슬람문화가 이입되었고 중국 문화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511년 포르투갈에게 식민화된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차례로 지배하였다.

### 2.1.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일반적 특성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통적 특징인 고상식이며 기둥과 보의 목재 가구식이다. '지붕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사가 급하며 유형은 붐붕 판장(Bumbung Panjang)<sup>6)</sup>, 붐붕 리마(Bumbung Lima), 붐붕 페락(Bumbung Perak), 붐붕 리마스(Bumbung Limas)로 나뉜다.'<sup>7)</sup>

<표 3>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지붕유형

유형	붐붕 판장	붐붕 리마	붐붕 페락	붐붕 리마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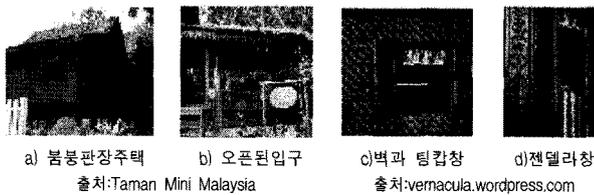
### 2.2. 파사드 구성요소

지붕은 파사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붐붕판장 지붕<그림 1-a>을 예로 들면 지붕 옆면 가장자리의

(Tropical Modern)으로 나는 박우희의 '동남아시아의 트로피컬 공간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61~66)를 참고하였으며 여기에서 트로피컬이라는 용어는 생략하였다.

- 본 연구에서 보수적 표현은 전통양식이나 식민양식의 원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것을, 진보적 표현은 이보다 많은 부분 변형하거나 재해석한 것을 의미한다.
- 붐붕판장의 자붕에는 야자수의 일종인 아탑(attap)을 덮었다. 그러나 이는 점차 혼합양식 지붕체인 아연판, 타일, 석면(zinc, tiles, asbestos)등으로 대체되어 갔다.
- 주서령·고영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0.12, p.133

박공널(Barge Boards), 삼각형 부분인 박공 패널(Gable Panels), 끝장식인 박공첨단(Gable Crown)이 특징이며 박공 첨단에는 버팔로 뿔의 상징으로 목재를 X자 형태로 교차하거나, 나가(Naga)<sup>8)</sup>를 장식하기도 한다. '벽은 대나무 줄기, 종려잎 등을 수직, 수평, 대각선으로 엮어 만든 패널<그림 1-c>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붙이거나 가로널 또는 투각된 나무패널<그림 1-d>을 붙인다. 또 입구(Anjung)는 벽 없이 오픈되어 난간만 있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그림 1-b>이기도 하다'.<sup>9)</sup> '창문은 덧문이 달린 여닫이 형태로 긴창인 젠델라(Jendela)<그림 1-d>와 짧은 창인 텡캅(Tingkap)<그림 1-c>이 있고 젠델라 창 덧문 안쪽은 안전을 위해 나무 그릴이 설치되어 있다'.<sup>10)</sup>



<그림 1>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파사드

말레이시아의 식민시대는 여러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아 튜더, 네오클래식, 네오고딕 양식들이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혼합되어 나타나며 중국의 양식이 서양식과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a>는 폐낭에 있는 Yeoh Wee Gaik House로 봄봉리마 지붕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식민양식이다. <그림 2-b>의 주택은 전체가 식민양식이나 고상식을 일부 차용하고 지붕은 봄봉페락이며 창문도 전통양식에서 기인함으로써 많은 부분 전통을 혼합하였다. 또한 <그림 2-c>은 파사드가 영국 네오클래식의 주요 모티브인 팔라디안 양식이나 지붕 머리는 중국식으로 특이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식민시대주택의 파사드를 보면 벽이나 개구부는 유럽의 양식을, 지붕은 말레이시아 양식을 채택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가끔 고상식을 응용하거나 중국식을 혼합하기도 하였다.



<그림 2> 말레이시아 식민시대 주택의 파사드

### 2.3. 내부 공간구성 요소

8) 인도의 불교와 힌두교에서 유래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죽지 않는 뱀 또는 용을 의미한다. 반은 사람, 반은 뱀 또는 머리가 여럿 달린 형상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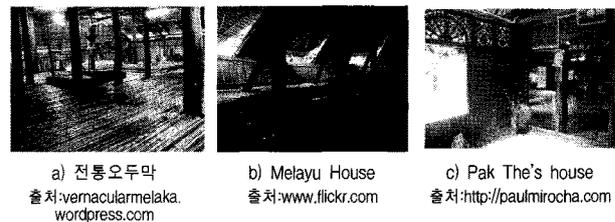
9) <http://archfullstop.com/traditionalmalayhouse.html>

10) 주서형 · 고영은, 앞의 글, p.132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내부공간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천장은 높고 경사진 지붕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그림 3-a>. 벽은 최대한의 통풍을 위해 구조적 기둥만 있고 벽이 있다 하여도 최소화하여 하나의 공간이거나 상부가 개방된 칸막이벽으로 외벽과 같은 짜임<그림 3-b>이다. 바닥은 주로 대나무를 갈라서 이어 만들며<그림 3-c> 그 틈을 통해 아래의 찬 공기를 끌어 들인다. 젠델라나 텡캅 등 개구부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덧문 외에 차양이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4-b>. 목조 주택의 실내에는 오두막<그림 4-a>과는 달리 잘 다듬은 재료가 쓰였으며 창문 위나 칸막이벽 위에는 투각된 패널이 첨가되는 경우가 흔하다<그림 4-c>. 한편 식민시대는 네오클래식 양식<그림 5-a>이 가장 많아 기둥과 아치가 주이며 천장은 르네상스식 들보가 많다. 창 또한 아치형이나 사각 프렌치 창문이 사용된다. 그러나 <그림 5-b>의 실내는 나무그릴이 설치된 텡캅양식 창문 이어서 전통이 가미된 경우이고 <그림 5-c>의 실내는 이슬람 양식의 투각장식과 혼합되어 있다. 이를 보면 실내도 파사드와 같이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그림 3> 말레이시아 전통주택 공간구성요소의 재료구성



<그림 4> 말레이시아 전통 주택의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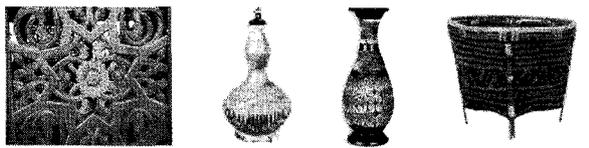
<그림 5> 말레이시아 식민시대 주택의 내부공간

### 2.4. 장식요소

말레이시아의 전통주택에서 '가구는 잠자리를 위한 매트 등 최소한으로 사용'<sup>11)</sup>되었고 식민시대를 통해 가구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실내의 장식품은 목각, 염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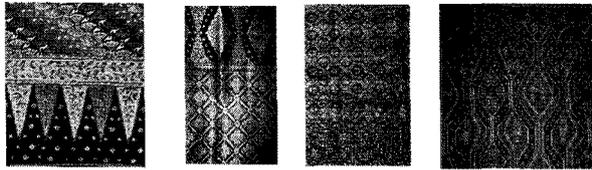
11) Gibbs, Phillip, Building a Malay House,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2007, p.11

자기 등 다양하다. 먼저 목각<그림 6-a>을 보면 주택의 지붕부 끝장식과 실내의 문이나 창 위를 장식하는 투각 판넬 또는 파티션으로 목각이 사용된다. 그 '디자인은 보통 대칭으로 식물과 꽃이 주제이고 이슬람의 영향으로 동물이나 사람은 조각에 들어가지 않는다'<sup>12)</sup>. 직물은 목면이나 실크에 염색을 한 Batik<sup>13)</sup><그림 7-a>, 손으로 짠 직조인 Songket<sup>14)</sup><그림 7-b>과 Pua Kumbu<sup>15)</sup><그림 7-c>가 유명하다. 도자기는 Perak지역의 조롱박모양 Labu Sayong 토기<그림 6-b>가 대표적이며 사라왁 (Sarawak) 지역의 꽃문양 도자기<그림 6-c>도 있다. 한편 바구니<그림 6-d>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공통된 공예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a) 목각 출처:go2travelmalaysia.com  
b)라부사용 출처:go2travelmalaysia.com  
c)사라왁 출처:shoomalaysia.com  
d)Melanau바구니 출처:shoomalaysia.com

<그림 6> 말레이시아의 장식요소(목각, 도자기, 바구니)



a) Batik 출처:malaysianmade.com  
b) Sonket 출처:go2travelmalaysia.com  
c) Pua Kumbu 출처:journemalaysia.com

<그림 7> 말레이시아의 장식요소(직물)

### 3. 사례분석

조사대상 호텔 파사드 및 로비의 공간구성요소별 디자인 유형은 T유형 31사례, C유형 24사례, M유형 47사례, T+M유형 58사례, C+T유형 4사례, C+M유형 21사례가 나타나 T+M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각 구성요소의 유형을 호텔별로 종합하고 본 연구에서 분류한 파사드 및 내부 공간의 구성요소 총 10가지 중 하나의 유형이 7가지 이상의 구성요소에 적용되어 있으면 그 유형이라 규정해 본 결과, T, C유형 각각 2사례, M유형 3사례, T+M유형 3사례, 혼합유형 5사례로 나타났다.

12) [http://go2travelmalaysia.com/tour\\_malaysia/wd\\_crvg.htm](http://go2travelmalaysia.com/tour_malaysia/wd_crvg.htm)  
13)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전래받은 말레이시아 바틱은 나선형 문양이 특징이며 인도네시아보다 패턴이 크고 단순하면서 색채는 밝고 활기차다.([http://en.wikipedia.org/wiki/Malaysian\\_batik](http://en.wikipedia.org/wiki/Malaysian_batik))  
14) Sonket은 귀족계층이 의식을 치를 때 머리카락에 두르던 직물로 금사나 은사를 섞어 짠 것이 특징이다.  
15) Sarawak지역에 거주하는 Iban종족이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던 면 직물이다.

<표 4>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 공간구성요소의 디자인 유형 분석

호텔	구성요소	단일적용			혼합적용			유형	
		T	C	M	T+M	T+C	C+M		
1. The Datal (Lankawi 지역)	파사드	지붕부	●						T 유형
		전면벽	●						
		창/문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창·문				●		
			가구		●			●	
	2. Bon ton (Lankawi 지역)	파사드	지붕부	●					
전면벽			●						
창/문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		
			창·문						
			가구		●			●	
3. Casa del Mar (Lankawi 지역)	파사드	지붕부						C 유형	
		전면벽					●		
		창/문			●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			
			창·문		●				
			가구		●				
4. Eastern & Oriental (Penang 지역)	파사드	지붕부				●		C 유형	
		전면벽		●					
		창/문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			
			창·문		●				
			가구		●				
5. Grand Plaza Parkroyal (Penang 지역)	파사드	지붕부				●		M 유형	
		전면벽			●		●		
		창/문			●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			
			창·문		●		●		
			가구		●				
6. Westin Langkawi (Lankawi 지역)	파사드	지붕부	●					M 유형	
		전면벽			●				
		창/문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기둥			●			
		장식 요소	바닥			●			
			창·문			●			
			가구		●				●
7. Holiday Inn (Penang 지역)	파사드	지붕부				●		M 유형	
		전면벽			●		●		
		창/문			●				
	내부 공간	공간 구성 요소	천장						●
			벽			●	●		
			기둥			●			●
		장식 요소	바닥			●			
			창·문		●	●			
			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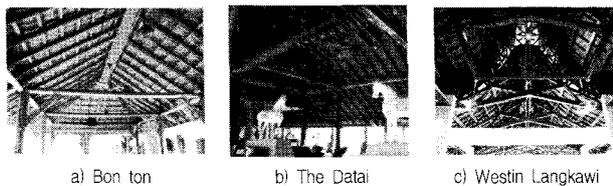
파사드의 전면벽과 창/문은 모든 사례에서 같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T유형 4사례, T+M유형 5사례, M유형 2사례, C유형 2사례, C+M유형이 2사례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양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먼저, T유형을 보면 개방형으로 벽이나 개구부 없이 구조적 기둥<그림 8-a,b>만 있는 3사례였고 벽과 창/문이 있는 1사례<그림 8-c>가 있었다. T+M유형은 모두 전통을 따르되 나무구조가 아닌 콘크리트를 사용<그림 8-g,h,i>하였고 M유형<그림 8-d>은 다층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층수를 올리면서 벽은 현대식으로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는 식민양식인 C유형 벽이 1사례로 클래식 기둥 및 아치형 창문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신고전 양식<그림 8-e>이었고 C+M유형이 2사례로 클래식 기둥 또는 아치<그림 8-f>를 간소화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파사드는 벽과 창/문이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지붕부의 표현은 전통을 고수하거나 보수적 또는 진보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었다.

(2) 내부공간

1) 공간구성요소

① 천장

천장은 T유형 3사례, T+M유형 7사례, C와 C+M유형 각각 2사례, M유형 1사례로 T나 T+M유형이 많았다. 먼저 T유형<그림 9>을 보면 전통에 따라 나무빔과 서까래, 지붕의 나무타일이 그대로 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T유형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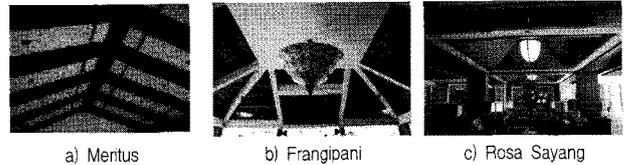
T+M유형은 전통주택 지붕의 경사는 유지하되 변형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지붕면의 박공패널이 전통방식으로 있는지의 여부로 보수적, 또는 진보적 표현을 가름해보면 보수적 표현<그림 10>은 경사 아랫부분을 나무대신 굵은 콘크리트 빔<그림 10-a> 또는 철근 빔<그림 10-b>으로 강조하거나 경사진 천장을 중앙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를 평면화<그림 10-c>하고 있다.



<그림 10> 보수적 표현의 T+M유형 천장

한편, 진보적 표현<그림 11>을 보면 경사는 유지하되 전통주택 지붕구조의 일부분을 발체하여 변형하거나 추

상화하고 있는데 <그림 11-a>는 천장 구조를 면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림 11-b>는 전통 천장구조의 모서리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림 11-c>는 곡선 천장의 선만을 발체하여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전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 11> 진보적 표현의 T+M유형 천장

C유형<그림 12>은 원형 또는 사각형 코니스 몰딩<그림 12-a>이 사용된 사례와 르네상스의 격자천장이 설치된 사례<그림 12-b>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M유형은 몰딩이라고 볼 수 없는 굵은 테두리의 사각형 안에 바로크의 Coved Ceiling이 낮은 각도로 적용<그림 12-c>되어 있다. 그 외에 전통이나 식민양식과는 상관이 없는 현대적 M유형의 천장도 1사례 나타났다.



<그림 12> C유형 천장

<그림 13> C+M유형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천장은 지붕부에서 전통과 관련된 사례가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C나 M유형도 섞여 있었으며 T+M유형에서 보수적 표현과 진보적 표현이 있었다.

②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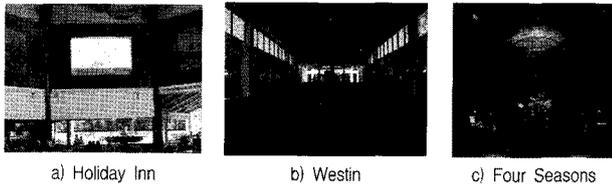
벽은 T유형 2사례, T+M유형 6사례, C유형 2사례, C+T유형 1사례, C+M유형 2사례, M유형 2사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T유형<그림 14>을 보면 최소한의 벽이나 파티션이 공간을 구획하는 전통주택의 전형적 양식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 둘 사실은 벽이나 파티션이 <그림 1-b>와 같이 대나무 줄기나 종려 잎 등을 엮어 만든 벽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T+M유형이라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보아 T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M유형<그림 15>은 두 사례 모두 직선적이며 흰색에 가까운 색이었으나 여기에 나무를 조합하거나 덧붙이는 등 자연과 유리되는 디자인은 배제하고 있었다.



<그림 14> T유형 벽

<그림 15> M유형 벽

T+M유형<그림 16>은 전통 벽의 일부분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벽을 하나의 액자처럼 나누고 그 양 옆에 조각장식을 가한 것으로 보수적 적용<그림 16-b>이라 보여지며 진보적 적용은 주택의 벽이나 문 윗부분에 설치하는 투각 장식<그림 16-b>을 직선으로 상징화<그림 16-a>한 벽이 4사례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말레이시아의 종교인 이슬람<sup>19)</sup>의 말발굽아치를 대나무로 엮어 구성한 사례<그림 16-c>였다.



<그림 16> T+M유형 벽

C유형의 벽은 Pilaster 사이에 벽이 있다거나 아치가 연속<그림 17>되는 전형적 신고전 양식이었고 C+T유형<그림 18>은 서양의 고전양식인 아치와 몰딩으로 구성되었으나 아치 윗부분과 코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정교한 투각과 목각장식이 있어 식민양식과 전통의 혼합이며 C+M유형<그림 19><sup>20)</sup>은 신고전양식의 직선 판넬을 몰딩이 아닌 재료와 선으로 현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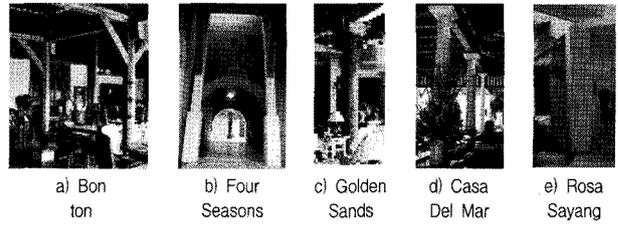
<그림 17> C유형벽 <그림 18> C+T유형벽 <그림 19> C+M유형벽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벽은 T와 C유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으며 T+M유형에서 보수적 표현과 진보적 표현이 있었고 이슬람의 아치도 보여지고 있다. C유형도 전통이나 현대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C+T유형과 C+M유형에서 이슬람의 장식이 가미되고 있었다.

③ 기둥

기둥은 한 사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하면 T유형 3사례, T+M유형 3사례, C유형 2사례, C+M유형 1사례, M유형 5사례로 M유형이 가장 많았다. 먼저 T유형을 보면 모두 전통주택 구조에서 오는 나무 기둥양식 그대로<그림 20> 적용되어 있었고 T+M유형은 이들 전

통구조의 기둥에서 기초부분을 확대<그림 21-a>한 사례와 주두를 특이하게 변형한 사례<그림 21-b>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남아시아의 주요 식물인 바나나잎이나 종려나무잎을 형상화 한 디자인이라 보고 T+M유형이라 판단하였다. 한편 C유형<그림 22>은 서양의 클래식 기둥양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M유형<그림 23>으로 별다른 장식없이 사각 기둥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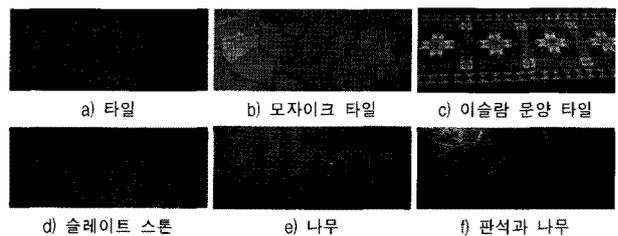


<그림 20> T유형기둥 <그림 21> T+M유형기둥 <그림 22> C유형기둥 <그림 23> M유형기둥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기둥은 크게 보아 T, C, M유형이 비슷하게 적용되었는데 특별히 기둥에 시각적 초점을 두지 않는 한 장식없는 사각 기둥이 사용되었다.

④ 바닥

바닥은 대부분의 호텔 로비에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타일<그림 24-a>이나 대리석<그림 24-d>, 슬레이트 스톤 등 석재로 마감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부정형의 타일들을 모자이크 식으로 배치한 사례<그림 24-b>와 이슬람의 타일장식을 연상시키는 바닥구성<그림 24-c>도 있었다. 한편 나무<그림 24-e>도 바닥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여러 가지 바닥재를 병합해서 사용한 사례<그림 24-f>도 다수 발견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대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감이 실제적 또는 시각적으로 낡은 느낌의 재료와 베이지색 등 Earth Tone 또는 Charcoal Grey 계열 등 자연에 가까운 색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24> 바닥

⑤ 창/문

창/문은 한 사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하면 T유형 2사례, T+M유형 10사례, M유형 4사례, C유형 3사례<sup>21)</sup>로 T+M유형이 가장 많았다. T유형<그림 25>은

19) 이슬람교에서 유래한 디자인을 전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들어온 시기는 14세기였고 그만큼 오랜 세월 정착하였으므로 이들도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20) <그림 18>에는 프론트 데스크 앞부분의 몰딩, <그림 19>에는 벽의 목각장식품이 이슬람양식이다.

두 사례 모두 창문 위에 투각장식이 나타난 전통양식이었고 T+M유형은 보수적 표현과 진보적 표현으로 나뉘어졌는데 보수적 표현을 보면 창/문의 기본형태는 전통적 요소를 따르고 있으나 현대적 접이식으로 변용<그림 27 a,b>하거나 전통 변형 덧문<그림 27-c>을 달아 놓았다. 이의 창문 형태는 이슬람양식의 아치와 전통 덧문의 조합이었다. 진보적 표현은 전통 창/문의 덧문을 현대적으로 해석<그림 28-a,b>하거나 전통 주택 창/문 위의 투각장식을 통유리창 윗부분에 덧붙인 디자인<그림 28-c>이었다. C유형은 아치프레임의 문과 양옆의 창을 대칭 배치한 1사례<그림 26-a>와 아치프레임 없이 프렌치 격자 창살을 사용<그림 26-b>한 2사례가 있었고 M유형은 장식이나 덧붙임 없는 일반적 통유리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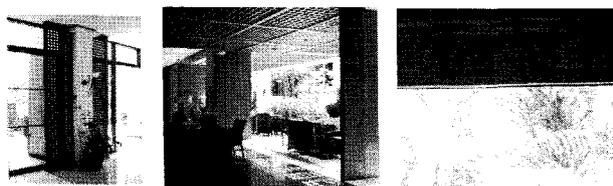


a) Berjaya Langkawi      b) Casa Del Mar      c) Eastern&Oriental  
 <그림 25> T유형창/문      <그림 26> C유형 창/문



a) Berjaya      b) Golden Sands      c) Four Seasons

<그림 27> 보수적 표현의 T+M유형 창/문



a) Golden Sands      b) Rosa Sayang      c) Meritus Pelangi

<그림 28> 진보적 표현의 T+M유형 창/문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창/문은 전통양식보다 현대화한 사례가 많고 그 표현은 보수적 표현과 진보적 표현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C유형은 식민양식 또는 신고전 양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 2) 장식요소

### ① 가구

뚜렷한 전통가구가 없는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에 사용된 가구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재료인 등나무로 제작되어 있어 이를 전통방식이라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등나무라는 재료보다 형태에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7사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함께, 8사례에서는 한 가지 유

형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세부를 보면 C유형 9사례, C+M유형 8사례였고 C+T유형 4사례, M유형 2사례의 순이었다. 먼저 C+M유형을 보면 대부분 신고전양식을 차용하였는데 등나무를 프레임으로 하여 형태를 간소화<그림 29-a,b,c>하였고 C+T유형은 세티(Settie) 또는 벤치형태의 나무 장의자<그림 30-a,b>였는데 말레이시아의 장식 목각이 첨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C유형은 대부분 영국 앤여왕시대의 왕체어<그림 31>, 영국과 프랑스 신고전시대의 가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a) Four Seasons      b) Rosa Sayang      c) Golden Sands

<그림 29> C+M유형 가구



a) Frangipani      b) The Datai      c) Eastern&Oriental

<그림 30> C+T유형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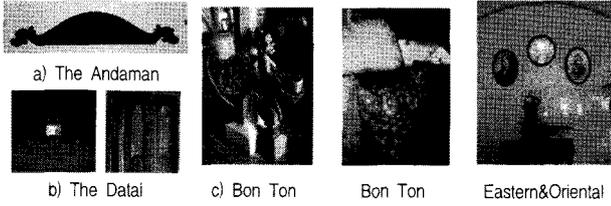
<그림 31> C유형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에 사용된 가구는 모두 C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그 형태는 대부분 식민양식 또는 유럽의 신고전양식 그대로, 또는 이에 바탕을 두고 현대화하거나 여기에 전통 목조각을 가미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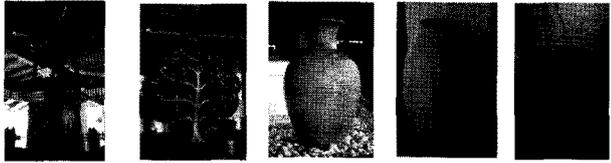
### ② 장식품

장식품은 9사례에서 한 가지 유형이, 6사례에서는 두 가지 유형(주로 T유형과 T+M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중 T+M유형이 13사례로 가장 많고, T유형 5사례, C유형 3사례였다. 먼저 T유형을 보면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목조각 장식<그림 32-a>이나 목조각 판넬<그림 32-b>을 로비의 벽에 걸어 장식하거나 실제적 목조각품<그림 32-c>을 놓아두기도 한다. T유형에는 종교적 장식품도 있다. 이슬람의 상징탑<그림 34-a>을 로비의 센터피스로 활용하거나 힌두교의 상징 장식품<그림 34-b>을 시각적 초점이 되는 장소에 놓아둔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서 전통직물의 활용을 보면 전체 사례에서 <그림 33>의 사례 외에는 찾아 볼 수 없어 다양한 종류의 전통 직물이 있음에도 그 활용도가 낮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T+M유형의 장식품은 도자기나 토기의 크기를 확대하고 형태를 변형한 보수적 표현의 장식품<그림 35-a>과 토기의 형태<그림 35-b>를 과감하게 변형하거나 금속줄로 도자기의 형태를 재해석<그림 35-c>하는 등 진보적으로 변형하고 있었다. C유형은 액자 또는 접시를 대칭으로 벽에 거는 전형적 식민양식<그림 34>이다.

21) 두 가지 유형의 창문이 사용된 호텔이 5곳 있어 총 19사례임



<그림 32> T유형 목조각 장식품 <그림 33> 직물 <그림 34> C유형



<그림 35> T유형 종교적장식품 <그림 36> T+M유형 도자기 장식품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장식품은 우선 사용된 양이 많지 않으며 T유형은 목조각이나 종교적 장식품에 집중되어 있고 Labu Sayong 등 전통 도자기는 전무하며 또 1사례<그림 33>를 제외하면 전통 직물과 바구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이슬람 등 종교적 장식품은 사용이 빈번하며 규모도 크고 시각적 초점이 되는 장소에 위치시키는 등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T+M유형은 도자기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C유형은 식민양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파사드 및 실내공간 구성요소에 나타난 디자인은 전통과 식민양식, 이슬람을 비롯한 종교적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망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전통의 활용이 가장 많았다. 둘째, 전통 디자인은 전통을 고수한 2사례를 제외하면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이 돋보였는데 특히 천장, 벽, 창/문의 보수적 또는 진보적 현대화가 많았다. 셋째,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공간디자인에는 현대적 디자인의 적용이 비교적 적었는데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형태적 적용이 대부분이고 재료나 색채는 자연적이었다. 즉 나무나 돌이 주재료이며 타일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거침질감에 Earth Tone이나 바랜 회색 등 자연 색채를 선택하고 있어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셋째, 500년이 된 말레이시아의 식민역사로 인해 식민양식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그 예는 드물었고 대신 거의 모든 호텔에서 식민양식 또는 유럽의 다양한 시대적 가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가구는 전통인 목각과 혼합하거나 형태는 전통재료인 등나무 줄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들 방식으로 변형하고 있었다. 넷째, 말레이시아의 제1 종교인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상당수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벽과 창문, 바닥의 타일구성, 그리고 장식품에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의 파사드 및 실내 공간구성요소에 나타난 디자인의 공통점은 그것이 전통이든 식민양식이든 말레이시아 스타일로 변형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종교적 디자인 또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일반적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보편성이 없을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참고자료로는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
2. 주서령·고영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0
3. 박우희, 동남아시아의 트로피컬 공간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4. 강유나, 인도네시아의 공간디자인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5. 박순관, 동남아 식민건축의 흐름과 성격: 건축양식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5(1), 2002
6. 윤복자, 세계의 주거문화. 서울: 신광출판사, 2000
7. 양민영,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9
8. 조성훈,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9.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5 Architecture, 2nd ed., Archipelago Press, Singapore, 1998
10. Datuk Syed Ahmad Jamal.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Craft and Visual Art. Archipelago Press, Singapore, 1998
11. Gibbs, Phillip, Building a Malay House,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2007
12. Warren, W. Tropical Asian Style, Periplus Editions, 1997
13. Sthapitanonda, N., Architecture of Thailand, Thames & Hudson Ltd., 2006
14. Jotikalikom, C.. Classic Thai. Hongkong: Periplus Editions, 2007
15. Reyes, E. V. Tropical Interiors. Hongkong: Periplus Editions, 2002
16. Sthapitanonda, N. Architecture of Thailand. Thames & Hudson Ltd., 2006
17. Trulove, J. G. Tropical Modernism. New York: Watson-Guptill, 2002
18. 윤진섭, 건설사 해외개발사업 무리 없나, 이태일리 뉴스, 2006. 9.6
19. 황정일, 건설업체들, 밖으로 눈 돌린다, 중앙일보, 2008.7.17

[논문접수 : 2011. 08. 31]  
 [1차 심사 : 2011. 09. 15]  
 [2차 심사 : 2011. 09. 23]  
 [게재확정 : 2011. 10. 07]